

조합원의 작은 희망을 앞장서 대변하겠습니다

발행인 김종기
편집인 정원상
주소 (702-702)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40번지
Tel. 053-603-3920
Fax. 053-603-3929 www.gbe.or.kr

가명종

회의활동 2면 현장활동 3면 교육활동 4면 연맹소식 5면 총연맹소식 6면 칼럼 7면 종합 8면

공무원연금 개악저지 총력 결의대회



경북교육노조 150여명 참석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이하, 경북교육노조, 위원장 김종기)은 9월 27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5시 40분까지 서울역 광장에서 개최한 “공무원연금 개악저지”, “공적연금 복원”을 위한 총력 결의대회에 조합원 약 150여명이 참석하였다. 이날 집회에는 전국 10,000여명의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산하의 조합원들이 서울역 광장을 가득 메웠다. 지난 2009년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의 개악저지를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사죄하는 의미로 김종기 위원장은 참회의 사발식에 참여하였다.

이날 참석자들은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 70%를 보장하기로 한 도입취지대로 공적연금을 복원해야 한다.”며 정부는 반토막 낸 지난 과오를 사죄하고 공적연금을 연금담게 운영하라고 촉구하였다.

제1부 집회가 끝나고, 참석자 전원은 서울역을 출발하여, 승례문을 거쳐 청계천까지 약 1.6km의 거리 행진을 벌였다. 거리 행진 간 김종기 위원장은 “정부는 국민연금과 형평성을 맞춘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상은 민간 연금회사만 배를 불리게 하는 것일 뿐이라며 국민연금 수준으로 공무원 연금을 깎을 것이 아니라 국민연금의 보장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경북교육노조는 11월 1일 “100만 공무원 총궐기 대회” 참가 등 공적연금 복원을 위한 투쟁을 계속해서 전개해 나갈 것이다.

2014년 2/4분기 경북교육청-경북교육노조 노사협의회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종기, 이하 경북교육노조)은 2014. 7. 17.(목) 14:00부터 본관 4층 대회의실에서 경북교육청과 2014년 2/4분기 노사협의회를 가졌다. 이번 회의는 총무과 소관 4개 안건, 행정지원과 소관 3개 안건, 학교지원과 소관 1개 안건으로 총 8개 안건에 대하여 협의하였다.



협의회에 들어가기에 앞서 교육청측의 교섭대표인 문영규 행정지원국장은 인사말을 통해 "단체교섭이후 처음 맞는 협의회이니 만큼 서로 진지한 대화를 통하여 이번 노사협의회에서 조합원의 권익 개선과 경북교육 발전에 일익이 되었으면 바란다."고 하였다. 한편 노조측 김종기 위원장은 "귀를 열면 듣기는 쉬우나 마음 열고 듣기는 어렵고, 눈을 뜨고 보는 것은 쉬우나 편견을 버리고 보는 것은 어렵다"는 말이 있듯이 집행부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잘 들어 소통의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였다.

이날 협의의 사안인 20년 이상 장기 재직자 특별휴가 조례 제정, 시설관리 직렬 결원에 관한 사항, 노사합동워크숍 개최, 한 마음 체육대회, 노동교육에 관한 건,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장치 설치 건은 수용하기로 하였으며, 행정실장 보직화 조례 개정, 사무관 시험시 소양고사과목 상시교육 요구, 시설관리 직렬 결원 해소 방안 요구, 노사합동워크숍 개최 요구, 한마음 체육대회 개최 요구, 단체협약 이행(노동교육)에 관한 사항,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장치설치에 관한 사항

노조제안사항	협의 결과
20년 이상 장기 재직자 특별휴가 조례 제정 요구	20년이상 15일 20년미만 5일 이내 특별휴가 신설(9.18입법예고)
행정실장 보직 발령 요구	2015.1.1. 실시예정
사무관 시험시 소양고사과목 상시교육 요구	추후 5급 승진방법 개선시 최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검토후 추진
시설관리 직렬 결원 해소 방안 요구	결원 충원 방법을 다각적으로 검토 중임.
노사합동워크숍 개최 요구	10.30~31 개최 예정
한마음 체육대회 개최 요구	11.8 개최 예정
단체협약 이행(노동교육)에 관한 사항	관계부서에서 이행 관련 공문 시행(7월 22일)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장치설치에 관한 사항	통학차량에 자동안전벨트 및 승·하차 보호기 장치운영 하도록 지도

제54차 정기상임위원회 개최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종기 이하 경북교육노조)은 2014년 7월 9일 제주도 컨스턴트 리조트에서 제54차 정기상임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상임위원회에서는 주요안건으로 △공무원연금개약 반대 투쟁을 위한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의 100억 투쟁기금 모금 안은 1인당 10만원씩 투쟁기금을 조

합원의 어려운 형편을 감안하여 각 직급별로 최저후원 금액을 차등(6급:8만5천원, 7급:6만원, 8급:5만원, 9급:3만원) 적용하여 후원하기로 의결하였다. 모금 시기는 8월1일부터 9월10일까지 각 지부장 등 지부임원들이 조합원을 방문하여 원천징수 동의서를 받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제55차 정기상임위원회 개최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종기 이하 경북교육노조)은 2014년 9월 19일 경상북도학생문화회관에서 제55차 정기상임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주요안건으로는 공무원연금개약 총궐기대회 참석에 대한건으로 상임위원 전원이 동의하여 9월 27일(토) 13시 서울역광장에서 1만여명의 조합원이 모인 가운데 '공적연금 복원을 위한 공노총 총력결의대회' 참여하도록 하였다. 특히 이날 김종기 위원장은 마무리 당

부의 말을 통해 "이대회는 참회와 복원을 주제로 공무원연금을 2010년 이전으로 복원하고 또 국민연금 소득대체를 70% 보장하는 도입취지대로 복원의 취지를 담고 있으며, 용돈수준 국민연금, 원안대로 복원할 것, 국민연금 통합해도 좋으나 근로기준법 적용할 것, 당사자를 배제한 밀실논의 규탄, 정부는 지난 과오를 사죄하고 공적연금을 연금담게 운영 할 것 등 경북교육노조 조합원의 염원을 담아 한목소리 높여 외침 것을 강조하였다.



교육행정 현장의 소리를 듣다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종기, 이하 경북교육노조)은 지난 9.13(금)부터 9.19(금)까지 조직문화 개선을 통한 교육행정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사합동 교육행정현장의 소리 청취회의를 경북의 23개 시군교육지원청과 각급학교의 지방공무원들을 대상으로 3개 권역으로 나누어 9.13(금)경상북도교육연수원(구미)을 시작으로 9.15(월) 경상북도교육연구원(안동), 9.19(금) 경상북도학생문화회관(포항)에서 경북교육청과 공동으로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는 경북교육노조의 건의로 교육행정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불합리한 행정 관행 및 제도, 조직내의 갈등요인 등 학교행정 현장의 전반적인 사안에 대하여 직접 청취하여 경북교육의 완성을 위한 교육행정 기반조성을 위해 시행하여 되었다. 이번 회의에서 교육지원청 별로 2명씩 제안사항에 대한 발표가 있었고, 주요 내용으로는 △학교 통학용버스 교체 및 입

차요건 완화 △ 행정실 겸임발령 및 각종 수당지급 정상화 △ 정원배치기준 재 책정 △ 사무관승진시험시 기획보고서 폐지 △ 정기 종합감사 개선 △ 인사 및 승진 관계에 따른 가시화된 기준 마련 및 공개 △ 학교행정실 업무분장 표준화 △ 소액 시설공사 집행의 효율성 제고 방안 △ 학교자재공사 설계용역 효율변경 △ 통학버스 대체인력방안 △ 행정예비인력충원 △ 병설유치원 인력 증원 등 40여건에 대하여 발표하였으며, 이와 함께 경북교육노조와 경북교육청과의 2/4분기 노사협의회에서 논의된 학교행정실장 보직발령과 사무관 승진대상자들의 소양고사폐지에 관한 설문조사도 함께 실시하였다. 경북교육노조는 이번에 발표된 제안사항들을 경북교육청과 함께 검토 분석하여 10.16(목)으로 예정된 3/4분기 노사협의회 안건 상정과 동시에 김종기 위원장이 자문위원으로 있는 2015-2018 경북교육발전기획단에 건의하여 요구사항에 대해 수송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공적연금개약저지를 위한 1인시위 참여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조(위원장 김종기 이하 경북교육노조)는 '공적연금 개약저지를 위한 1인시위' 13일째를 맞아 9월 16일(화) 청와대 인근 효자동 입구에서 1인시위를 이어갔다. 이날은 경북교육노조, 대전교육노조, 서울교육노조가 참여한 가운데, 정부가 연금에 대한 불편한 진실을 왜곡하고 말고 비정상적인 공적연금을 국민과 함께 정상화 할 것을 촉구하였다. 이번 1인시위는 9월 26일까지 지속될 예

정이며, 다음날 9월 27일에 있을 공적연금 복원을 위한 공노총 총력결의대회로 이어질 예정이다. 9월 27일에는 공노총 소속 조합원 5,000여명이 서울역광장에 집결하여 총력결의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1인시위에는 김종기 위원장을 비롯한 정원상 사무총장, 조원정 안동지부장, 이영욱 포항지부장, 권기일에천지부장, 김만일 청송지부장이 참석하였다.

2014년 공무원 노사관계교육 실시 (경북교육청 현장 맞춤형교육과정)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종기 이하 경북교육노조)은 7월9일부터 제주 컨벤션리조트에서 2박3일동안 노동행정전문수원에서 실시하는 「2014년 공무원노사관계교육 경상북도교육청 현장맞춤과정」에 24개지부의 지부장, 사무국장, 위원장을 비롯한 본조 임원 등 53명이 참석하였다.

이번 교육에서는 경북교육청 문영규 행정지원국장이 공무원복무에 관한 특강을 실시하였고 참석자 전원과의 대화

를 통해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시설관리 등 소수직렬의 승진문제, △보직관리규정에 관리운영직군은 퇴직1년전 인사유예조항누락, △소수직렬 무보직 사무관 관련문제, △노조 지부간부 활동문제를 건의하였다. 이에 문영규 행정지원국장은 “여러분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추진과정에서 노조와도 충분한 논의를 하겠다”고 하였다.



2014년 고위공직자 청렴교육장에서 연금법 설명회

경북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종기 이하 경북교육노조)은 7월21일과 22일 경북교육연구원(안동), 경북학생문화회관(포항)에서 열린 “2014년 고위공직자 청렴 리더십교육”에 참석하여 공무원연금에 대한 설명회를 가졌다.

이날 교육은 경북교육청 감사관실에서 개최한 청렴교육으로 본청 국과장을 비롯한 장학관, 사무관이상, 직속기관장과 사무관이상, 지역교육청교육장과 사무관이상간부와, 각급학교장 및 사무관 이상행정실장 등 약 1,270명이 이틀간 안동(400명), 포항(870명)으로 나누어 개최되었다.

공무원연금설명회는 “공무원연금의 이해” 동영상 시청을 시작으로 김종기 위원장의 연금법 설명이 이어졌고, 설명이 끝난 후 김종기 위원장은 교육에 참가한 고위 공직자들에게 “공무원연금은 한평생을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한 공직

자들이 퇴직 후 받는 유일한 생계대책이며 생존권이며 국가가 어려울 때 공직자들에게 허리띠를 졸라매고 열심히 일하면 퇴직 후에 밥은 먹을 수 있게 하겠다”는 사회적 합의에 의한 정부의 약속이었다”면서 “이는 반드시 지켜져야 하며 지키기 위한 회생이 따른다면 노조가 앞장서고 간부가 회생 할 것”이라고 하였다.

이어서 “국민들은 마치 공무원들은 한푼의 부담도 없이 20년이나 퇴직하면 많은 돈을 연금으로 평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다”면서 “연금문제는 노조만의 일이 아닌 공무원전체의 일이라면서 경북교육을 이끌고 계시는 분들이 국민 설득과 함께 직장내 직원들이 연금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줄 것”을 호소하였다.

이날 경북교육노조 임원들은 참석자들에게 조합원들 배포용인 노조 소식지 “자명종”과 “공무원연금개악반대 후원금안내문”을 함께 배포하였다.



영남지역 교육청노조임원 워크숍 참석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종기, 이하 경북교육노조)은 9월 12일(금)~13(토) 이틀간 대구교육해양수련원(포항시 칠포)에서 개최된 제4회 영남지역교육청노조 임원워크숍에 참석하였다. 이번 행사는 대구광역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윤조) 주관으

로 부산광역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권경천), 울산광역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정준환),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종기), 경상남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성희) 등 5개 노조에서 50여명이 참여했다.



영남지역 교육청노조 워크숍은 영남지역 교육청공무원 노조 간부들의 친목도모와 연대력 강화로 노조활동의 성과제고 및 투쟁의식 강화를 목적으로 지난 해 8월에 경북교육노조가 개최를 주관한 이후 이번이 4회째 개최되었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각 노조별로 참석자 소개

후 각 노조의 활동 및 주요실적을 공유하는 발표시간을 갖고 향후 노동조합의 방향을 이해하고 노조 간부로서의 자세와 역할에 대한 인식을 확립하는 시간을 가졌다.

“행정실 직무분석 연구용역” 계약 체결

전국시·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오재형, 이하 교육청노조)이 7월 16일(수) 노조사무실에서 한국지방발전연구원과 「전국 각급 학교행정실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업무분장 및 직무분석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올해 12월까지 약 5개월간에 걸쳐 학교 행정실에서 수행하고 있는 직무 전반에 대한 실태 분석, 관련 법령 및 제도분석, 설문조사 및 공청회 등을 추진하고 행정직원의 운영실태에 관한 실증

적 분석을 통해 학교 행정실 인력관리의 효율화 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교육청노조 오재형 위원장은 “행정실 직원들도 교육의 한 축으로서 자긍심과 자부심을 갖고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형식적·관행적으로 진행돼 오던 업무처리 절차와 방법을 간소화시켜 행정인력 낭비를 최소화함으로써 행정실 직원의 사기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경북교육노조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 방문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종기 이하 경북교육노조)은 대구지역공무원노동조합(대구시청, 경북도청, 대구교육청, 대구북구청, 구미시청)와 함께 9.3(수)10시 국회에서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주호영의장(대구수성출)과 면담을 가졌다.

이번 면담은 지난번 발표한 새누리당의 공무원연금법 개정 방향에 대한 설명을 듣기위해서 대구지역 공무원노조대표자들의 요청에 의해 이루어졌다.

이날 참석자들은 “공무원연금법 개정 시 이해 당사자인 공무원들이 반드시 참여하여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요청

에 주호영정책위 의장은 “공무원연금법에 대한 개정의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으나 어떠한 결정도 이루어진 것이 없으며, 공무원노조에서 좋은 방안을 제출하여 주면 함께 검토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였다.

또한, 참석자들은 “지금 공무원들은 박봉에 시달리면서 열심히 일했지만 연금을 받는다는 이유로 마치 국민의 세금이 나 축내는 사람으로 전락되고 있다”면서, “국민들 모두 친인척이 공무원들이는데 이렇게 공무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면 국민까지 분열될 수 있다”고 하였다.

이에, 함께 참석한 이철우의원(김천)은



“공무원들의 사기가 많이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다. 우리나라 발전에 기여한 공무원들의 사기가 더 이상 떨어지지 않도록 다각도로 노력할 것이며, 공무원연금법에 대해서는 같이 고민하자”고 하였다. 면담은 약 두 시간에 걸쳐 진행되었으

며 경북교육노조 김종기 위원장, 대구시청 김도형위원장, 대구북구청 석현정위원장, 경북도청 도영호위원장, 구미시청 강창조위원장이 참석하였으며 대구시청 수석부위원장 등 임원이 배석하였다

새누리당 사무총장과 공노총 당면과제 논의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조진호, 이하 '공노총')은 7월 16일(수) 광화문소재 한 식당에서 새누리당 사무총장인 윤상현 국회의원과 환경노동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조재정을 만나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공노총 현안 사업에 대한 의견을 새누리당에 전달하는 자리로 △공무원연금법 사회적 합의 △대정부 단체교섭 재개 협조 △타임오프제 도입 △6급 근속승진 및 당면 현안사업 △정부 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하고 협조를 구했다.

조진호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우리사

회 사회적 갈등 비용이 연 82조~264조원에 달하고 있다"며 "사회적 갈등을 없애 비용을 절감하여 복지정책에 사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향후, 공노총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새누리당과 상시논의할 수 있는 채널을 마련해 공노총 현안사업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오재형 위원장은 대외협력위원장으로 7월 15일(화)~17일(목)까지 안전행정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의 의원들을 방문해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공노총 의견을 전달하는 대국회 활동을 전개했다.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한 새누리당 항의방문

공노총은 8월 8일(금) 공적연금 개악을 시도하려는 새누리당 경제혁신특위의 보도자료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새누리당 당사를 긴급방문했다.

새누리당은 같은날 경제혁신특위 공적연금개혁분과위가 실무를 주도하고 당정책위가 발치는 형태로 당 차원에서 오는 9월 정기국회 법안발의를 목표로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각종 언론에 밝혔다.

또한, 안종범 경제수석이 청와대 비서진에 합류하기 직전까지 새누리당 경제혁신특위에서 공적연금개혁분과위원장을 맡아 개혁안의 밑그림을 그렸으며 현재는 개혁안을 매듭짓는 단계라고 보도됐다.

이에 공노총은 8월 8일 성명서를 통해 "이는 공적연금의 직접 이해당사자인 공무원은 배제한 명백한 언론플레이와 밀실 정치로서 집권여당의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밝히고 새누리당 당사에 찾아가 항의방문을 시도했다.

하지만 경찰의 저지로 당사진입이 거부돼 당사 입구 정거에 나섰으며 당사 관계자에게 원내대표와 경제혁신특위 위원장과의 면담을 요청했다.

당사 관계자는 "빠른 시일내에 면담 일시를 알려줄 것"을 약속했으며, 이에 공노총은 시일이 늦어질 경우 공노총 산하 단위노조와 함께 전력 투쟁할 것을 전달하고 5시간 동안의 입구 정거를 해제하고 해산했다.



미혼모 지원시설 봉사활동 전개

공노총은 7월 22일(화) 안전행정부와 함께 서대문구 대신동에 위치한 미혼모 지원시설인 애란원을 찾아 후원물품을 전달하고 봉사활동을 전개했다.

애란원은 미혼으로 임신·출산해 도움이 필요한 여성들을 위해 숙식, 보호, 상담, 교육 등 어려움에 처한 청소년 및 여성들에게 필요한 도움을 주는 기관

이며, 공노총과 안행부는 상생협력사업의 일환으로 미혼모 지원사업을 추진해왔다.

이번 애란원 방문은 네 번째로, 시설에서 부족한 각종 유아용품 전달하고 일손을 돕기 위해 식당 주방 대청소를 실시했으며 이후 애란원의 현황을 청취하고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새누리당 원내대표 면담 촉구 항의방문

공노총은 8월 12일(화) 오후 3시 공적연금 개악 저지를 위해 새누리당 당사를 항의방문했다.

공노총은 앞서 8월 8일(금) 긴급 중앙집행위원 및 연금위원 회의를 거쳐 새누리당을 항의방문하고 원내대표와 경제혁신특별위원회위원장과의 면담을 요청했으나 8월 11일(월) 새누리당 측에 "기사의 내용이 당론이 아니기 때문에 면담은 거부하며, 추후 당론이 결정된 후 논의하겠다"는 답변을 보내왔다.

이에 대해 공노총은 당론이 아니라고 하나 이미 언론에서는 새누리당 경제

혁신특별위원회에서 개혁을 시도한다는 보도가 나왔기에 원내대표와 경제혁신특위 위원장과 면담을 요청하고 공적연금개혁안에 대해 공무원 유일 집행위원 및 연금위원 회의를 거쳐 새누리당을 항의방문하고 원내대표와 경제혁신특별위원회위원장과의 면담을 요청했으나 8월 11일(월) 새누리당 측에 "기사의 내용이 당론이 아니기 때문에 면담은 거부하며, 추후 당론이 결정된 후 논의하겠다"는 답변을 보내왔다.

이날 공노총은 새누리당사 앞에서 경찰과의 대치 중 몇 차례 진입을 시도하며 투쟁에 대한 결의를 보였으며, 추후 투쟁일정을 계획하며 다음날인 13일(수) 해산했다.



세월호에 비정규직은 있었고 노동조합은 없었다

— '과적'된 신자유주의와 '전복'된 상식에 관한 소고

상식은 권력 갑(甲)들의 답론인 경우가 많다. 당연하게도 상식이 진실을 보증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권력은 자신의 언어를 상식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여 진실을 숨기고 비틀어버린다. 힘의 논리가 언어를 지배한다. 세월호 참사를 보며 드는 생각이자. 지금 대한민국은 세월호라는 뗏장구름아래 진실마저 짓눌려있다.

"세월호의 살인자는 선장이 아니라 신자유주의다". 독일에서 철학을 가르치고 있는 한병철 교수의 지적이다(그는 『피로사회』란 책을 썼다). 세월호는 신자유주의, 그것도 부패한 신자유주의를 '과적'했다가 전복됐다는 점에서 우리사회의 복제품이다. 민영화, 규제완화, 비정규직 등이 신자유주의의 표현이라면 그 바탕에는 '판피아'로 상징되는 정경유착이 뿌리를 틀고 있다.

"속웃 바람으로 도망치는 어처구니없는 선장"은 세월호의 악마라 불린다. 선장을 변호할 생각은 터럭만큼도 없다. 선장은 69세의 1년 단위 계약직이었다. "고물배를 고용이 불안정한 신분으로 장시간에 걸쳐 키를 잡은" 그에게 배와 운명을 같이 하는 직업의식을 요구하는 건 무리가 아닐까. 그럴 양이면 선장의 자리에 정규직을 앉히는 것이 최소한의 '상식'이 아닐까. 이번 세월호 핵심 부서인 갑판부와 기관부 선원 17명 중에 12명이 비정규직이었다. 선장 외에도 항해사 조타수 기관장 기관사 조기장 조기수 등이 줄줄이 비정규직이었다. 그러니 배가 가라앉으니 자기들살 궁리만 할밖에. 유연하고 양극화된 노동시장을 바꾼 채 선원들을 마녀사냥으로 몰고 간다고 해서 해결책이 되

는 것이 아니다.

노동조합이 제대로 기능했으면 세월호 참사가 났을지도 돌아야 봐야 한다. 비정규직인 선장이 승무원이 선박의 불법개조나 화물과적의 문제를 제기했다면 일찌감치 해고당했을 것이다. 만일 노조가 있었다면, 노조가 안전문제와 관련해 문제를 제기했다면, 노조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요구하고 일부분야라도 관찰시켰더라면...

바로 여기에 노조의 필요성이 존재한다. 노조는 개인이 제기할 수 없거나 개인이 제기하더라도 반항이 없는 불만과 요구를 전달하는 창구다. 노조를 만들고 가입함으로써 노동자들은 비로소 자기의 목소리를 갖는다. 그래서 허버트대의 프리먼 교수는 노조의 핵심 역할을 집단적인 발언(collective voice)이라고 불렀다. 이를 기반으로 노동자는 임금 및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경영에 참가하는가 하면 사회적으로 정의의 주장한다.

노동조합은 헌법과 노동법에 의해 보호되는 노동자의 기본권이다. 현실의 대한민국도 그렇게 받아들일까. 노동을 전공하는 사람으로서 못내 쓸쓸하기만 한 것은 김영오씨에 대한 조합원 시비였다.

수사권과 기소권이 포함된 세월호 특별법을 요구하며 서울 광화문에서 46일이나 단식을 한 '유민아빠'가 바로 그다. 그에 대한 신상털기가 이뤄지고(우리사회는 이만큼 천박하고 상스럽다) 그는 민주노총 금속노조 조합원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금속노조가 배후세력이고 유민아빠는 '의식화된' 전문 시위꾼이라는 논조가 번져갔다.

급기야 김영오씨가 금속노조 조합원이라는 사실에 대해 변명을 하고 나섰다! "충남 지부 금속노조 조합원인 거는 맞는데... 작년 7월 22일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다 정규직으로 전환되었구요. 머리털 나고 처음으로 노조 조합원이 되어 봤습니다. 정규직 전환되면 자동으로 조합원에 가입되게 되어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노조간부도 아니며, 주말특근하랴 평일 잔업하랴. 그럴 여유가 없어 금속노조 집회에 참가한 적이 없다는 사실도 덧붙였다.

화가 날 노릇이었다. 조합원이라는 사실을 왜 변명해야 했을까. 만일 노조가 있고 김영오씨가 노조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그걸 외려 변명할 건덕지가 돼야 하지 않았을까. 게다가 12시간 맞교대에도 노동을 했다면, 그리고 200만원밖에 받지 못했다면 우리사회는 그런 걸 도마 위에 올려야 하지 않을까. 안전업무를 담당하는 회사가 직원의 대부분을 비정규직으로 활용하는데도 정부는 도대체 뭘 했는지에 대해서도 쫓고 까붙어야 하지 않을까.

기억하기 위해서라도, 고통스런 과거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세월호의 진상은 밝혀야 한다. 그 방안은 특별법을 통해 전국적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다. 한국의 지성을 모두 동원해서 세월호 참사의 원인을 규명되거기에는 신자유주의라는 이름으로 이뤄진 고용의 유연화(비정규직)와 노조활동에 대한 제약도 포함해야 한다. 노동조합이 우리사회에서 공공의 적이 아니라 민

주주의 발판이며 안전의 보루라는 사실도 확인해야 한다.

세월호 참사 이래 공공성에 관한 논의가 확산되고 있다. 생명과 안전이라는 공적인 가치가 시장원리(신자유주의) 앞에서 붕괴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나타나지는 현상이다. 신자유주의에 저항하는 화두로, 또는 그 대안으로 공공성이 조명을 받는 것이다.

공공성은 시장의 원리, 성장중독·돈중독의 논리에서 벗어나 참여와 공감에 바탕을 둔 공동체를 구축하는 일을 말한다. 공감의 핵심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라면 참여의 통로는 노동조합이다.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통해 제 목소리를 갖는다면 노동자들은 더 이상 지시와 명령의 대상이 아니라 참여하고 개혁하는 주체가 된다.

세월호안전복원 것이 아니라 상식마저 전복됐다. 세월호는 화물만 과적한 것이 아니라 신자유주의도 과적했다. 이제 '새로운 배'는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과거의 잘못을 밝혀야 수술도 가능하다. 세월호에서는 자리를 지키고 가만히 있어라 했다. 세월호의 침몰이 대한민국호의 침몰로 이어지지 않게 하려면 노동조합이 가만히 있어 될 일은 아니다. 지금 대한민국호는 맹골수도를 지나는 중이다. 우리 자신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라도 노조의 이름으로 나서야 한다. 더욱이 세월호에서는 승객의 다수가 학생이었고 그들이 희생됐다. 교육청 노조원은 교육의 주체고 공무원 노조는 공공성의 실현을 자기의 목적으로 삼고 있지 않은가.



박태주 (고용노동연구원 교수, 공무원노총 정책자문위원장)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경제학 학사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노동경제학 석사
영국 Warwick 대학교 노사관계학 박사

주요 경력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전국전문기술노동조합연맹(공공운수연맹) 위원장
청와대 정책실 노동개혁 TF팀장(비서관)
서울지법노동위원회 공익위원
현대자동차 노사자문위원회 대표
한국GM 노사자문 위원회 자문위원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고용노동연구원 교수
한국산업노동학회 회장

주요 논문 및 저서

- "공무원 노사관계: 단체교섭구조를 중심으로", (공저, 한국노동연구원, 2006)
- "현대자동차 노사관계 진단과 대안", (공저, 연구책임자, 한국노동교육원, 2006)
- "현대자동차의 세계화전략과 노동조합의 저항적 실리주의", 『산업노동연구』, 제15권 1호(2009)
- "현대자동차의 장시간 노동체제와 주간연속 2교대제에 대한 시사점", 『동행과 전망』, 제76권(2009, 여름호)
- "사회운동적 노동조합주의를 통해 본 노동운동 재정전략의 과제: 전국공무원 노동조합의 사례를 중심으로", 『산업노동연구』, (2010)
- "주간연속 2교대제"를 둘러싼 쟁점과 과제, 『산업노동연구』, (2009)
- "정시간 노동이 일과 삶의 갈등에 미치는 효과", 『산업노동연구』, (2011)

동행(同行)

자연에서 배우는 위기대응

자연은 인간의 영원한 스승이라고 한다. 자연은 수십억 년 동안 진화 과정을 거치면서 생존 위험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체계를 형성하여 위협요인이 발생했을 때 대응을 최적화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시스템이 내재되어 있다는데 (삼성경제연구소),

첫째는 자율성이다. 자연은 위협에 직면했을 때 위험을 감지하는 요소가 중앙의 통제를 기다리지 않고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 둘째는 모듈화이다. 자연은 많은 생명체는 내부 구조를 구획별로 분리함으로써 유기체의 일부가 손상되어도 전체는 존속될 수 있도록 대비하고 있다. 포유류의 면역체계는

몸 전체에 고루 분포되어 있으며 구역별로 방어하고 있다. 셋째는 가변성이다. 생명체들은 상당한 행동 변화 및 변신 능력을 보유하고 있어서 위협의 종류에 따라 스스로 적절히 변화시켜 대응한다. 넷째는 잉여이다. 자연은 하나의 요소가 기능을 하지 못할 때를 대비하여 그 기능을 대신 할 수 있는 다른 요소를 준비해두고 있다. 다섯째는 협동이다. 생명체들은 대내외적으로 협력관계를 구축함으로써 적의 위협이나 환경의 혹독함에 효과적으로 대응한다. 이와 같이 자연의 위기대응 시스템을 실제적으로 인간은 운영하고 있거나 사용하러 충격을 받아 파손으로 침수가 될

때 격벽을 설치하여 더 이상 침수되지 않도록 하는 것과 선제 하부에 일정량의 물(평형수)을 저장하여 기울 때 정상으로 복원 되도록 하는 것 등은 자연에서 배운 위기 대응 시스템의 응용이다. '위협사회'의 저자 윌리엄 벡은 한국에 대해 "예기치 못한 위험 요소 앞에 일종의 '조직화된 무책임성'이 발생하는 경우 국가 기관이나 제도에 대한 신뢰를 잃게 되고, 신뢰를 잃으면 위험은 더욱 배가 된다"고 지적했다. 세월호 사고 이후 정부나 지자체에서 안전하고 효율적이고 컨트롤하는 조직을 두고자 하는데 그보다 앞서 자연이라는 스승으로부터 한 수 배우면 어떨까?



절대 비밀을 지켜달라는 약속을 하고 동생을 취업시켰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비밀은 없는 법, 그의 이런 행위는 직무를 수행할 때 혈연, 지연, 학연 등으로 특정인에게 혜택을 주거나 차별을 하면 안된다는 공무원 행동강령 제6조 특혜의 배제를 어겼기 때문에 징계를 받게 되었습니다. 공무원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 이런 특혜가 통용되는 사회가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지혜와 느낌이 있는 공간

그때

사람들은 말한다. 그때 참았더라면, 그때 잘 했더라면
 그때 알았더라면, 그때 조심했더라면, 훗 날엔 지금이 바로 그때가 되는데
 지금은 아무렇게나 보내면서 자꾸 그때만을 찾는다.

눈

내 손에 손톱 자라는 것은 보면서 내 마음에 욕심 자라는 것은 보지 못하고
 내머리에 머리카락 양긴 것은 보면서 내 머릿속 생각 비뚤어진 것은 보지 못하네
 속까지 들여다볼 수 있는 눈을 가졌으면 좋겠다.
 크고 밝은 눈을 가졌으면 좋겠다.

때문

잘 자라지 않는 나무는 뿌리가 약하기 때문이고
 잘 날지 못하는 새는 날개가 약하기 때문이다
 행동이 거친 사람은 마음이 비뚤어졌기 때문이고
 불평이 많은 사람은 마음이 좁기 때문이다.

귀

저절로 열리고 닫히는 귀를 가졌으면 좋겠다.
 남을 칭찬하는 소리엔 저절로 활짝 열리고
 남을 욕하는 소리에 금방 닫히는 그런 예쁜 귀를 가졌으면 좋겠다.
 칭찬보다 욕이 많은 세상에 한 쪽만을 가지더라도
 그런 귀를 가졌으면 좋겠다.

— 좋은글 중에서

조합원들의 목소리를 담습니다.

'자명중'에서는 조합원들의 원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누고 싶은 글, 노동조합 활동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글을 03ina@hanmail.net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할 예정이오니,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기한_ 수시접수
 분량_ 200자 원고지 10매이하
 또는 A4 2장 자유분량

장르_ 시, 수필, 칼럼, 논평 등 제한없음

※ 이름, 연락처, 소속기관과 필자 사진을 함께 보내주시시오.

일정안내

- 2014.10.16.(목) 2014년 3/4분기 노사협의회 실시
- 2014.10.30.(목)~10.31.(금) 노사합동워크숍 개최
- 2014.11.1.(토) 공적연금지지를 위한 "100만 공무원 총결기 대회" 실시
- 2014.11.5.(수) 경북교육노조 제28차 임시대의원대회 개최
- 2014.11.8.(토) 제9회 경상북도교육청 교육행정인 한마음 체육대회 실시